제5장 형제끼리 화목하라

도 입

여러분에게는 형제가 있는가? 물론 이 때의 형제는 형제자매를 모두 일컫는 말이지만, 나이가 좀 든 분이라면 형제가 여럿일 것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면 한두 명이 고작일 것이다. 사실 형제자매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이고, 이것은 특히 형제자매가 혼인한 이후에 더욱 잘 지내야 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이 장의 제목을 친친(親親 : 친해야 할 사람과 잘 지냄)이라 하여 형제 사이의 화목을 포함해서 친족끼리 화목해 잘 지내는 것을 국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생활은 그것과 다르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 따라 형제 사이의 화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아무튼 형제가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생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자애롭게 하는 것을 미루어 가면, 친한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친해야 할 사람과 잘 지내는 문제를 다룬다.

[시경]

아가위나무의 꽃이여, 환하게 활짝 피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만 못하다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이것은 형제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노래이다."

[시경]

처자식이 화합함이 마치 비파와 거문고를 타는 것 같도다. 형제가 화목하여야 즐겁고 또한 즐겁도다.

〈주석〉 첩산사씨(疊山謝氏)가 말하였다.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어긋나서 매우 어지럽게 될 것이다. 비록 처와 자식을 거느리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즐거움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오직 형제가 화목하면 한 집안이 우애하여 서로 화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시 처와 자식의 즐거움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화목한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어지러워진다면, 사람이 화목한 것 역시 불안해지는 것이다."

[서경]

요(堯) 임금이 큰 덕을 잘 밝혀 그것으로써 모든 친족을 친밀하게 하고, 친족이 이미 화목하게 되니 백성을 다 같이 밝게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이 모두 밝게 되었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모든 친족이란 고조(高祖)대로부터 현손(玄孫) 대에 이르는 직계 친척을 중심으로, 방계(傍系)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까운 데를 들어 먼 데를 겸한 것이다. 상복을 입는 다른 성(姓)의 친척도 역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율곡의 풀이]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것은 가문에 있어서 급한 일이나,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일률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종족(宗族) 가운데는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수준이 같지 않지만 화목을 돈독히 하는 은혜는 마땅히 공평해야 하고, 벼슬을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은 마땅히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두텁게 양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쳐 재주와 덕이 뛰어난 자는 골라서 직접 벼슬을 주고, 재주와 덕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자는 녹(祿)만 받아먹게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종족이 온전해질 수 있고 정사(政事)에 빠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뒷날 그 알맞음을 잃어 종족을 치우치게 믿고 일을 맡기면, 임금의 명을 제 맘대로 하여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 때 만약 폐단을 바로잡고 잘못을 억제하려면 비록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임금께 충성을 원하더라도 그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선왕의 도리가 아니다.

또 물건이나 곡식을 종족에게 하사하는 데는 절도가 있고 접견하는 데에도 때가 있으니 따뜻한 정성으로 열어준다. 그들이 익힌 것을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쌓은 것을 제각기 펼치게 하여, 능한 자는 권장하고 능하지 못한 자는 경계시키면, 인정과 예법이 나란히 시행되고 일어나 좋게 될 것이다.

그러나 뒷날 그 알맞음을 잃어 치우치게 사사로이 하고 지나치게 은혜를 두텁게 하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고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않고 현실 정치에 피해를 끼질 것이다. 반면에 종족을 평범하게 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처럼 소외시킨다면, 이 모두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선왕의 은혜가 아니다.

반드시 사사로운 은혜로 공정한 정의를 해치지 않고 반대로 공정한 정의로 사사로운 은혜를 끊지 않아서, 은혜와 공정한 정의 모두를 살린 뒤에야 친한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도리가 될 것이다.

해 설

이 책은 율곡선생이 왕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율곡의 풀이에서는 형제 사이의 화목을 직접 거론하는 말은 없고 왕이 종친들을 어떻게 관리해고 대우해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요즘말로 대통령의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인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말하는 것과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선생의 말로 대신하고 대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은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율곡 선생이 그 책에서 형제끼리 화목해야 하는 근거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었다. 하나는 형제는 부모의 몸, 요즘말로 부모의 유전자를 함께 물려 받았다는 점이고, 하나는 자식은 대개 부모를 사랑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 곧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조선중기 당시까지만 해도 선생의 이 두 전제를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근거로 삼은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 두 전제가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다. 같은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잘 지내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사랑으로 곧바로 이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잘 대해 주거나 원하는 것을 뒷받침 하거나 유산을 많이 물려주어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제 사랑은 어디다 호소해야 이루어질까? 더구나 형제가 어릴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혼인한 뒤에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갈등하게 되고 심할 경우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친가 쪽 형제들은 경험이나 정(情)이 남아 있어서 혹 사랑할 수도 있지만, 시댁이나 처갓집 형제를 그 배우자가 관습을 떠나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형제의 우애를 당연시 여기는 조선시대에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럼 현대사회에서 형제 사랑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생각해 볼 문제

1. 우리 사회를 보면 못사는 집의 형제들은 오히려 똘똘 뭉쳐 부모를 잘 모시고 화목하게 사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재산이 많을 수록 더욱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끈 대기업의 총수 자녀들 간의 다툼이 그것이고, 그 옛날 왕자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는 것도 다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부모로서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다툼이 없는 일부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말해 보시오.

2. 요즘 다 자란 형제들 사이를 보면 간혹 늙은 부모의 봉양을 두고 갈등을 겪는 형제들이 더러 있다. 상대적으로 유산을 적게 물려받은 둘째아들이 비교적 많이 물려받은 맏아들에게 봉양을 미루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맏아들이 잘 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맏아들이 잘 살지 못할 경우 여러분이 잘 사는 둘째아들이라면 부모의 봉양을 어떻게 하겠는가? 또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딸이라면 이런 부모를 어떻게 하겠는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3.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체 처하면 내 몸처럼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율곡 선생을 비롯하여 옛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다. 인간의 도리라고 여긴 근거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혈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개 작은 도움은 잘 주지만, 큰 도움 가령 가정을 가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선뜻 형제를 도우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형제나 자매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왕창 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음식과 의복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함께하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선생의 의견을 따라 재산을 팔아서라도 도와야 할까? 아니면 작은 도움만 주고 끝내야 할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만약 율곡 선생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4. 현실적으로 형제를 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형이나 동생이 어릴 때부터 나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한 경험이나 피해의식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서로 다툰 상처가 깊기 때문에, 부모가 남긴 유산의 갈등 때문에, 종교나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형제의 인격이 실망할 정도로 좋지 못해서, 또 나의 배우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말씀처럼 다 자라서 성인(成人)이 된 후에도 형제끼리 우애가 깊은 경우는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다면 율곡의 이런 말이 현실성이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율곡 선생이라면 오늘날 현실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각자가 말해 보세요.

한문 익히기

불이사은 해공의 불이공의 절사은
不以私恩으로 害公義하고 不以公義로 絶私恩하느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不 : 아니하다/以 : ~으로써/恩 : 은혜/害 : 해치다/公 : 공변되다, 공적인/義 : 옳다, 바르다/絶 : 끊다

*不 : 부정어로서 맨 뒤에 해석한다. ~하지 않는다.

*以 :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어조사로서, ~로써 또는 ~을 가지고로 풀이함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사은(私恩) : 사사로이 베푸는 은혜, 사적인 혜택

*공의(公義) : 공정한 도의 또는 공정한 정의

해석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정한 정의를 해치지 않고, 공정한 정의로써 사사로운 은혜를 해치지 않는다.

약 유 애 부 모 지 심 즉 기 가 불 애 부 모 지 자 호
若有愛父母之心이면 則豈可不愛父母之子乎아?(『격몽요결』)

한자 풀이와 해설

若 : 만약, 만일/有 : 가지고 있다/愛 : 사랑, 사랑하다/父 : 아비/母 : 어미/之 : 어조사/心 : 마음/則 : 곧/豈 : 어찌/可 : ~할 수 있다/不 : 아니하다/子 : 아들, 자식/乎 : 감탄이나 의문 따위를 나타내는 어조사

* 若~則~ : 만약 ~하면 ~하다를 나타내는 가정을 나타내는 말

*豈 ~乎 : 어찌 ~하겠는가의 뜻으로 반어형 용법에 쓰임

*之 : ~의 또는 ~하는 등으로 쓰이는 어조사

*父母之子 : 부모의 자식으로 형제를 가리킨다.

*愛父母之心 :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해석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